

투데이 칼럼

전북 첫 ASF 발생... 방역 총력 속 농가 현실도 함께 보아야

전북 고창에서 지난 1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전북 지역에서는 첫 발생 사례로 도는 즉각 이동제한과 전면 소독, 살처분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 양돈농가에서는 방역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몰적으로 사육하고 있는 돼지에 대한 모든 두수 살처분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보상 체계에 대한 우려를 함께 제기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일 고창군의 한 양돈농장에서 폐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ASF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전북도는 즉시 해당 농장을 출입 통제하고 가족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긴급 방역에 들어갔다.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약 1만8,000마리의 돼지는 모두 살처분 대상이 됐으며, 발생 농장 반경 10km 이내 10개 농가, 약 4만 2천 마리에 대해서도 이동 제한과 정밀검사가 진행 중이다.

도는 공동방제단 46개 단과 소독 차량 93대를 동원해 농장 주변과 주요 도로에 대한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가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 상태다.

ASF가 발생한 해당 농장의 농장주는 30년 넘게 양돈업에 종사해 온 양돈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베테랑 농가다. 그는 "이상 증상이 보여 즉시 신고했다며 '걸려야 할 이유도 없어 보였지만, 혹



이만호
본보 정치부장

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신고한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농가는 평소 폐사율이 낮았고, 문제가 발생한 개체도 특정 돈사에서 소수에 그쳤다. 초기 검사에서도 상당수 개체가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최종 확진 이후 방역 규정에 따라 농장 내 모든 돼지를 살처분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농장주는 "나라 규정이 그렇다니 할 말이 없었다"며 "문제가 된 몇 마리가 아니라 전두수를 살처분해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1만8,000 마리는 숫자가 아니라 농가의 전부"라며 "그 안에는 양돈농가에서 수십 년간 쌓아온 생계와 빛 가족의 삶이 모두 들어 있다"고 말했다.

인근 양돈농가들 역시 ASF 확산 차단의 중요성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방역이 농가의 현실과 괴리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통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한 농가는 "방역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개체별 위험도를

고려한 보다 정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모든 농가를 동일한 기준으로 묶어 전면 살처분하는 방식은 농가의 협조를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농가는 "신고를 하면 무조건 전부 살처분이라는 인식이 퍼지면, 농가들이 신고를 주저하게 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이러한 방역 체계 전체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살처분 보상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농가들은 보상 수준과 지급 시기 모두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양돈농가 관계자는 "돼지는 단순한 재고가 아니라 성장 단계와 출하 시기에 따라 가치가 크게 달라지는 생산 자산"이라며 "현실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보상에 농가에 빛만 남긴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동제한으로 인한 출하 지연, 사료비 증가, 거래 중단 등 간접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부담이 고스란히 농가 몫

으로 남는다는 설명이다. 한 농가는 "살처분 이후 다시 재입식까지 버틸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않으면, 사실상 폐업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농가들은 방역물품과 인력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소독약, 방역복, 차량 소독시설 등은 방역의 기본이지만, 이를 농가가 자체 부담하는 구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소 규모 농가일수록 방역 비용 부담이 크다.

농가들은 공동방제단 운영과 함께 농장 내부 방역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작업 지원,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다국어 방역 교육, 현장 맞춤형 컨설팅이 병행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양돈업은 사료, 운송, 도축, 가공, 유통으로 이어지는 지역 농업 경제의 핵심 축이다. 한 농가의 붕괴는 한 가족의 문제를 넘어 지역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양돈농가들은 "방역은 단기 성과보다 장기 신뢰가 중요하다"며 "농가가 행정을 믿고 즉시 신고할 수 있고, 방역 이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번 사태를 통해 ASF 확산 차단이라는 목표와 함께, 양돈농가의 생존과 회복을 고려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고창 ASF 발생을 계기로, 방역과 농가 보호를 함께 아우르는 보다 정교한 대응 체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사설

4차 산업혁명 마지막 퍼즐

4차 산업혁명은 2010년대부터 물리적, 디지털 및 생물학적 세계가 융합되어 모든 학문·경제·산업 등에 전반적으로 충격을 주게 된 새로운 기술영역의 등장을 뜻한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디지털화 및 인공지능(AI)의 영향으로 4차 산업혁명을 '제2 기계시대'와 연관시켰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로봇·사물인터넷·3D프린팅·자율자동차·양자컴퓨팅·나노테크 등과 같은 영역에서 이뤄질 기술 혁신이 특징이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작업 대체로 일자리 감소, 인간과 로봇(인공지능)의 공존,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윤리적 조작에 따른 생명윤리 등 여러 과제를 지니고 있다. 퍼지컬(Physical) 인공지능(AI)은 센서·카메라·라이다 등 물리적

환경을 인지하는 입력장치와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로봇 팔·이동체·액추에이터(구동장치) 등을 통해 실제 세계에 물리적 작용을 가할 수 있는 AI 시스템이다.

기존 AI가 컴퓨터 화면 속에서 텍스트나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그쳤다면, 퍼지컬 AI는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등 물리적 형태를 갖추어 실제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해 행동한다.

퍼지컬 AI가 4차 산업혁명의 마지막 퍼즐로 제조·물류·의료·서비스 전반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최근 열린 CES 2026은 첫 공개된 현대차그룹 계열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휴먼로이드로봇 아틀라스 등을 비롯해 각국의 퍼지컬 AI 로봇 경연장이었다.

우용민 화백 '전북의 산하'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은 지난달 16일부터 2월 19일까지 전북예술회관의 수목화가 우용민 작가를 초대, '전북의 산하·지리'를 운(智異驢驢)을 열고 있다. 이는 2026년 새해를 여는 첫 번째 특별기획전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하는 '전북의 산하' 기획 시리즈의 연장선이다. 지리산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과 정신성을 예술로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리'는(智異驢驢)은 예로부터 수행과 은둔, 깨달음의 장소로 인식되어 온 정신적 영산으로서의 지리산과 그 속에 깃든 보이지 않는 울림을 뜻한다. 전주 한지에 담은 지리산의 수목 서사 250여 점으로 도민과 만난다.

작가는 지난 5년 동안 지리산의 사계와 운무, 능선과 산사를 직접 밟고 누비며 지리산을 단순한 조형적 대상이 아닌 사유와 수행의

대상으로 삼아 현장 작업을 이어왔다. 지리산의 장엄한 기록에서 시작, 자연의 본질을 탐구하는 사군자를 거쳐, 도민의 인성을 기원하는 세화로 이어지며 자연에서 삶으로 확장되는 예술적 서사를 완성했다.

단순한 풍경의 재현을 넘어 수천 번의 붓질로 쌓아 올린 지리산의 능선은 산수화의 새로운 감각을 제시하며, 관람객들에게 지리산에서 시작되는 전북 자연의 깊은 울림과 명상의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전시는 전북의 산하를 예술로 만나는 소중한 기회이자, 전북 예술회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기점이다. 지리산의 합한 기운을 담은 수묵 예술을 통해 도민과 관람객이 희망찬 새해의 기운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트럼프 사진 불태우는 튀르키예 시위대



1일(현지 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있는 튀르키예 미국 영사관 앞에서 친이란 반미·반이스라엘 시위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포스터를 불태우고 있다.

브루노 마스와 '아파트' 공연 펼치는 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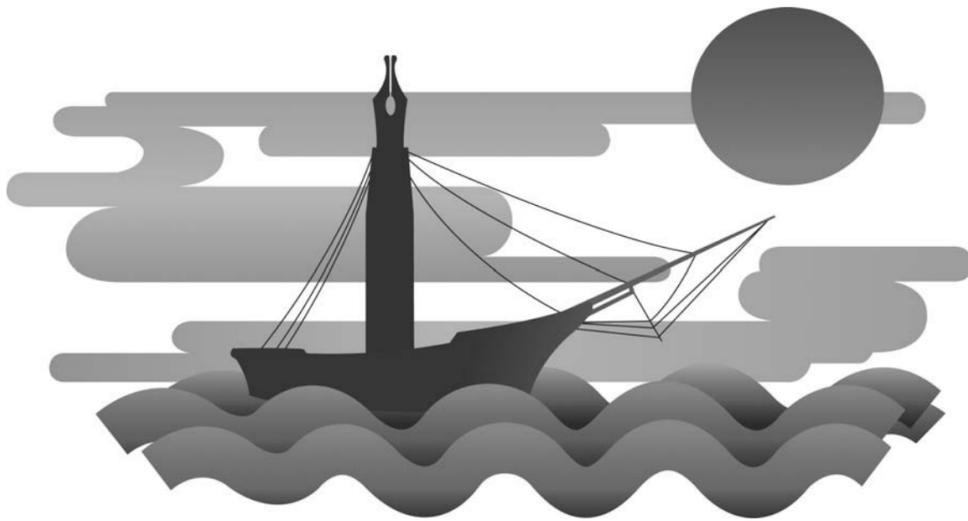
로제(왼쪽)와 브루노 마스가 1일(현지 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크립 토닥터 이레니에서 열린 제8회 그라미 어워즈에서 '아파트' 공연을 펼치고 있다.

사내·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